

11.24 ~ 11.28 @ 학생문화관 로비  
자보 상시 전시

2014

틀린그림찾기  
문화제

사  
이

장애인권을 고민하는 틀린그림찾기  
학문관 427호

ew\_searcheye@naver.com  
@ewhasearcheye

# 사이

## 0/ 우리 사이

틀린그림찾기 & 사이 소개 ..... 3

420 ? 너와 나의 사이 0 ! ..... 4

## 1/ 틈새

말은 한 곳 차이 ..... 11

만화와 현실 사이 ..... 14

\*사이사이 만화 1 : 고향가는 방법 ..... 20

## 2/ 관계

아는 사이 ..... 23

친구 사이 ..... 26

그렇고 그런 사이 ..... 32

\*사이사이 만화 2 : 애프터 신청 ..... 37

## 3/ 시간

내가 고민하는 사이 ..... 40

내가 없는 사이 ..... 44

\*사이사이 만화 3 : 우리 개가 타고 있어요 ..... 55

만화를 그리는 사이 ..... 57

후기 ..... 58



## 0/ 우리 사이

## 당신과 틀린그림찾기, 우리 사이

틀린그림찾기는 장애 인권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치단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당연하게 여겼던, 혹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회의 '틀린 그림'들을 조금씩 일상 속에서 고집어내고자 합니다. 틀린 그림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깜짝 놀라고, 부끄러워하고, 때로는 뿌듯해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를 바꾸어 나가기 위한 작전을 세우고 행동들을 만들어어나가고 있지요 :)

매년 가을에서 겨울로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문화제를 하다 보니, 감기도 걸리고, 아프고, 그러면서 한 해를 돌아보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올해는 참 기네요. 사건사고가 너무 많았기에 이렇게 느끼는 걸까요. 우리 사이의 생각은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또 슬프지만, 그 공백을 단번에 메꾸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틀린그림찾기는 소의 탈을 쓰고! 조심스럽게 여러분의 사이에 숨어들어가, 저희가 끈질기게 묻고 물어져서-나름대로 내린 결론을 야금야금 전파하려고 합니다. 이번 문화제에서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사이사이 틀린그림찾기가 했던 '사이'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했습니다. 벌어진 틈 사이, 너와 나의 관계 사이, 그리고 흘러간 시간 사이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문집을 덮을 때 즈음엔 틀린그림찾기와 여러분 사이 - 우리 사이가 한 걸음 더 긴밀해져 있기를 바라며

문화제 "사이", 시작합니다!

## 420 ? 너와 나의 사이 0 !

카리

### 1. 420

4월 20일은 누군가에게는 '장애인의 날' 일수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일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4월 20일을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의 날'로 지정해 기념행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4월은 1년 중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어서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둔 것이라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4월 20일이 가장 맑은 날이라고도 해요. 1997년부터 '올해의 장애극복상'을 제정하여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단체별로 체육대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따뜻해 보이는' 풍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일 년 중 딱 하루 4월 20일에만 장애인들을 불러내어 정부에 입맞쳐 맞는 행사만을 개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정말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들이 행복해 할까요? 장애인 극복상도 한 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장애를 '극복'하다? 극복을 할 수 있다면 애초에 장애라고 이름 붙여질 일도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마치 현실의 많은 어려움들에 부딪힌 장애인들에게,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에게 '너희들 스스로 이 시련을 극복해!' 라고 종용하는 것만 같은 거부감

마저 듭니다. 그러한 시련을 만들어 낸 정부와 사회는 쏙 빠지고서 말이죠.

이동 수단이 보장되어 있지 못해서 외출하지 못하고 집에만 있는 장애인들은 단 하루, 4월 20일에 눈부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문 밖으로 나섭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장애인들에게 잘 해주고 있다'고 외치는 정부의 목소리 뒤에, 실업에 허덕이는 장애인들, 차별과 소외를 당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는 힘없이 묻히고 맙니다.

그래서 장애인(장애인권운동이 펼쳐지는 판?)에서는, 이렇게 단 하루만 마치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특별하게 대접받는 날이 아니라 여전히 변화하지 않는 차별과 억압의 사회구조를 알리는 날로 4월 20일의 의미를 새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차별'이지요. 그렇기에 이제는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생각하는 것이 어떨까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적극적으로 알려내는 투쟁체 중 하나인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장애 인권을 쟁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 시민, 사회, 학생 단체들의 연대 조직으로서 매년 4월을 앞두고 정부 측에 요구안을 내걸고 지속적인 투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던 만큼, 공투단은 예년과 다른 대폭 확장된 10개의 요구안을 내걸었습니다. 관계자들은 "작년에는 요구안이 5개 정도였다. 요구안이 많이 있어도 다 다루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요구안을 줄였던 것인데 올해는 지자체 선거도 있고, 교육권 등의 쟁점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많이 담았다. 노동권 문제도 사실 장애인운동계에서 다루지 못했지만, 대책위가 꾸려지면서 이런 부분들도 다뤄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받아서 요구안에 담게 됐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2. 요구안

올해 공투단이 내건 요구안은 ①장애등급제 폐지 ②부양의무제 폐지 ③활동지원 24시간 보장 ④발달장애인법 제정 ⑤수화언어법 제정 ⑥탈시설 권리 쟁취 ⑦장애인 이동권 쟁취 ⑧장애인 노동권 쟁취 ⑨장애인교육권 쟁취 ⑩장애인 정보, 문화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등 10가지입니다. 여기서 간단히 몇 가지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1)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은 국가가 등급을 매겨 분류해 복지를 제공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본래 장애등급제는 1988년부터 일본의 방식을 도입하여 시행된 제도이지만, 이제는 일본도 장애인에게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 사용하는 차별의 상징인 '장애등급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몸에 고기처럼 등급을 매겨 선별적/일괄적으로 제공되는 복지가 아니라, 개인의 상태와 특성에 맞는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 2) 부양의무제 폐지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1촌 내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이 있으면 그 가족에게 부양의무를 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부양의무제는 가족과 연이 끊긴 독거노인, 장애 자녀를 둔 빈곤층 부모 등 최저 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는 극빈곤층에게 부담을 줍니다. 직계혈족에게 얼마 되지 않는 재산과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심지어 그 혈족과 연이 끊긴 상태라도 말이죠!) 복지의 부재를 합리화하는 부양의무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 3)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2007년 중증장애인들이 투쟁을 통해 얻어낸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에게 보조인을 파견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활동보조 서비스는 장애 등급별로 사용가능 시간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1급 중증장애인은 하루 3-4시간으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어있고, 이러한 활동보조인의 이용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연장 수당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동보조인의 노동시간을 월 최대 208시간으로 제한했고 이에 활동보조인들의 월급이 내려가고 있으며, 충분한 서비스의 질이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루 몇 시간이든 활동보조를 보장해야 하고, 활동보조인의 노동자로서의 기본권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공투단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 4) 발달장애인법 제정

발달장애는 아동기에 발현된 지적장애/자폐성 장애 등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가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장애 유형을 말합니다. 발달장애인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나타나기 때문에, 학교 및 가정, 일상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익혀야 하는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 인지학습, 사회적 통념과 상식 등을 습득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들은 학대를 비롯한 각종 노동 착취 및 인권 침해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법'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중도에 장애를 갖게 된 장애인들과는 그 출발점부터 다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접근방법과 목적이 달라야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가집니다.

### 5) 탈시설 권리 쟁취

복지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

인은 2012년 말 기준으로 총 3만 64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법인운영 시설만을 집계한 통계이므로, 신고되지 않은 각종 시설과 개인 운영시설을 합치면 훨씬 많은 장애인이 시설 생활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장애인 생활 시설에서 학대나 인권 유린 같은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시설 형태에서는 절대 인간다운 장애인의 삶과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없습니다. 시설에서 평생의 반 이상을 거주하다 탈시설한 장애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이 내일 같은, 내일이 오늘 같은 삶을 살았다. 출고 배고픈 것보다 더 슬픈 건 내가 짐승이 되어 가는 기분이었다.”라고요. 장애인의 인간다운 권리를 빼앗고 땅 위에 세워진 거대 수용소와 같은 시설에서 벗어나 생활할 권리를 장애인에게 보장해야 합니다.

### 3. 너와 나의 사이 = 0

2014년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당일에 공투단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고속버스 타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모든 교통수단을 교통약자들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등은 장애인들이 명백히 이용할 수 없게 되어있는 것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시내버스가 아닌 고속버스에는 저상버스가 전무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찰의 대응은 “이는 불법이다. 원천봉쇄하겠다.”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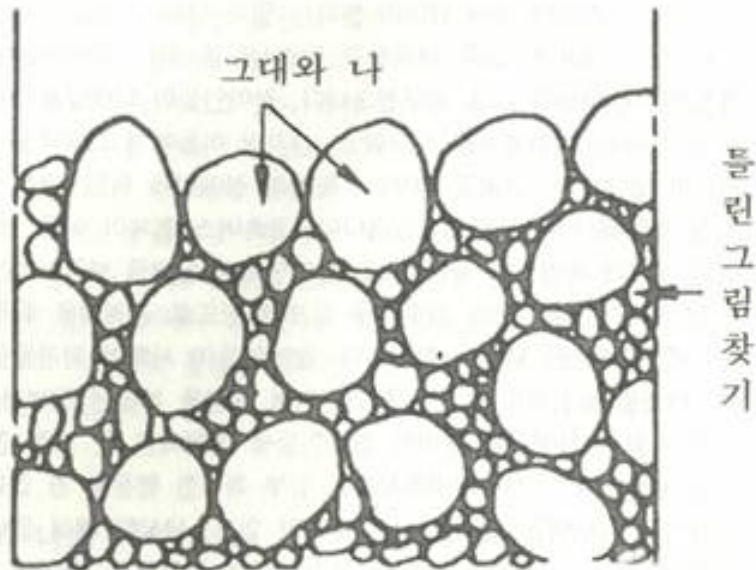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기차는 휠체어를 태울 수 있다지만, 기차는 환승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기차가 아직 닿지 못하는 대한민국 곳곳에 이들은 가고 싶어 합니다. 한 고속버스 기사는 현장에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본인 차나 가족들 차로

가는 수밖에 없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서로가 힘들다.” 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본인 차나 가족들 차가 없는, 또 기차역에 접근하기 힘든 장애인들은 집에만 박혀 있어야 한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경찰은 고속버스 표를 구매하고 탑승시도를 하는 장애인들에게 불법집회라며 해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장애인들이 터미널로 진입하려고 할 때부터 원천봉쇄를 시도했고, 심지어 이들에게 최루액을 난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특별히 장애인을 위한 ‘저상 경찰버스’를 마련해 이들을 연행해갔습니다. 고속버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장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정당한 주장과 집회에 대해 최루액을 살포할 정도로 공권력을 휘두른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장애인들이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 저상버스를 도입하라는 요구를 외면하며 녹장을 부리던 정부가 발 빠르게 저상 경찰버스를 준비해 장애인들을 연행해간 것 또한 참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일부 과격한 행동을 한 집회 참가자들에게 최루액을 사용한 점은 문제가 없고, 세심한 배려 없이 최루액을 맞게 된 장애인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장애인 이해를 위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루액을 난사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차별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장애인이나 까 참아라, 어쩔 수 없다.’ ‘100만큼 받으려 생각하지 말아라. 20만큼 받는 것도 감사하게 여겨라.’ 라는 말들은 우리의 사이를 좁히려는 시도를 무색하게 만들 만큼 기를 꺾어버리는 말들입니다. 손상을 넘어선 ‘장애’의 의미를 부과하고, 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분리시켜 섬처럼 덩그러니 남겨놓는 것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렇기에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이(42)를 0으로 만들려는 노력들에 가해지는 억압들이 아직은 많이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노력들이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 1 / 틈새

## 말은 한 곳 차이

### 배리어프리 영화(Barrier Free Film)

청각장애인이 영화 내용을 파악하기 쉽도록 소리 정보를 자막으로 입힌 영화, 시각장애인을 위한 더빙영화만이 배리어프리 영화가 아니다. 영화를 보는 데 있어 부딪히는 장벽에 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위한 영화라기보다 누구나 접근이 용이한 영화인, '엑세서블 시네마(Accessible Cinema)'이다.

### "너 장애인이나?"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이 부자연스러워 보일 때 행동을 한 사람에게 주로 쓰인다. 이때에는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욕으로 사용되는 '병신'과 같은 맥락에서 쓰인 것이나, 장애인이란 단어의 뜻은 '개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 아니다.

### 장애우

'장애인'이 부정적인 단어처럼 쓰이면서 '장애우'란 단어의 어감이 더 친근하게 들린다 하여 자주 쓰이는 말. 사람 인(人) 대신 벗 우(友)를 쓰는 경우,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장애를 가진 친구'로 부른다는 뜻인데, '친구'라는 말은 '상대편을 무간하게 또는 낮추어 부르는 말'이므로 결국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나보다 나이가 지긋이 많아 보이는 분께 '장애우 어르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장애

를 가지고 있는 나의 친구인데 어르신'이란 뜻인데, 아무리 그래도 나보다 나이가 지긋이 많아 보이는 분을 동등하거나 그보다 높은 위치에서 막역한 친구로 대하진 않지 않은가.

### 결정장애(선택장애)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느 한 쪽을 고르지 못해 괴로워하는 심리를 뜻하는 신조어이다. 장애는 단순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단어이다. 물론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결정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게 하는 상태를 장애라 부른다는 것은 '장애'라는 단어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다. "나 완전 결정장애야."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장애를 '어떤 사물의 진행을 가로막아 거치적거리게 하거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함. 또는 그런 일.'의 의미에서 사용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결정장애'라는 말 대신 '우유부단'과 같은 단어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만들어진 시설들(장애인전용 화장실, 장애인전용 은 대부분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도 함께 이용한다. 그러므로 편의시설은 장애인에게 꼭 필요하지만 장애인만이 쓸 수 있는 시설과 설비는 아니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말이 적절할 것이다. 편의 시설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뜻한다. 그러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이유가 효용성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특별한 편의시설이 없이도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물이나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디자인)할 수도 있는데, 이런 디자인을 보편적 디자인 또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라고 한다.

### 장애를 앓다

'장애를 앓다'라고 말하는 것은 장애를 병으로 인식하고 장애로 인해 당연히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장애로 인해 마음에 근심이 있어 괴로움을 느낄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과연 장애인들은 장애를 '앓고' 있는 것일까? 장애는 치료될 수 있는, 그리고 치료되어야 하는 병과 같은 것일까? 장애는 꼭 치료해야 하는 병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일 뿐이다. 또한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이 장애로 인해 고통 받거나 근심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장애를 '앓고 있다'라는 표현은 장애인을 병을 가진 약자로 만들고, 사회가 보장해야 하는 장애인의 권리를 치료해야 하는 개인적인 문제로 만든다. 따라서 장애를 '앓고 있다'가 아니라 '장애가 있다'라고 표현해야 옳다.

### 장애를 극복하다

극복' 1) 악조건이나 고생 따위를 이겨냄 2) 적을 이기어 굴복시킴.

극복' 1) 이기어 도로 회복함. 또는 본디의 형편으로 돌아감. 2) 정도로 돌아감. 또는 그것으로 돌아가게 함.

우리는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꿈을 이루거나 큰 성과를 얻어내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용기를 주었다는 뉴스들을 흔히 접할 수 있다. 사람들은 그들을 대단한 사람이고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로 여긴다. 그러나 장애는 앓는 것이 아니듯이, 해결해야 하거나 덮고 올라서야만 하는 문제가 아니다. 장애를 극복한다고 하는 말은 장애를 더 이상 가지지 않게 된 상태가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은 장애인이 아닌 것이 아니다.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노력해서 성과를 얻어낸 것뿐이다. 장애를 가졌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장애를 자기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만화와 현실 사이

: 원투 &lt;워 볼러스 워&gt; 과 결정 장애에 대하여

카리

## 1. 원 볼러스 원



이 오타스립지만 오타가 절대 아닌, 참신한 제목을 가진 만화는 내 사고의 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만화 중에 하나이다. 이 만화는 ‘뿔’이라는 가상의 신체 기관이 인간들에게 존재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데, 주인공 두 명은 누구나 ‘두 개’의 뿔이 있는 것이 ‘정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에서 오직 ‘하나’의 뿔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묘사된다. 이처럼 만화 속에 가상의 신체 기관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작가는 ‘장애’라는 개념을 가상의 신체기관의 유무로 투영시켜, 만화에서 주인공들이 겪는 사건들을 우리의 현재 세계에 비추어 해석할 수 있는 여

지를 마련해준다. 참으로 놀랍지 않은가? 작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장애의 유형을 만들어내 특정 유형의 장애에 대해 편견을 재생산시키지 않음과 동시에<sup>1)</sup>, 비현실적인 기관인 '뭉'의 유무로 장애를 판별하는 만화 속 사회가 현실과 다르지 않음을 만화를 읽으며 독자 스스로 느끼게 해준다.

작가는 만화 속에서 두 개의 뿔을 가지지 못한, 작품 속에서 이른바 '뿔병신'이라고 불리는 주인공들을 등장시킨다. 그러나 이들은 원 플러스 원인 두 개의 뿔의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뿔, 그리고 하나의 뿔 (여기서 '그리고'의 의미를 '뿔러스'로 보면 좋지 않을까?)을 가진 개개인으로써 그대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간다.



1) 특정 유형의 장애에 대해 편견이 재생산된다는 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드라마나 영화 등의 매체에서 장애인인 등장할 때 그 인물을 'A라는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유형의 장애인의 대표' 격으로 생각하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면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에서의 주인공 영이가 하는 모든 행동을 보고 '모든 시각장애인은 저렇구나. 라고 사람들이 일반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 사용한 문장이다.



3세대까지는 정당하지만, 다른 언어도 가능하지 않을까?

## 2. 그리고, 혐오와 동정의 혼란한 경계에서

사실 이 만화를 보면서 든 나의 생각을 솔직하게 밝히고 싶다. 나는 장애인에 대한 이유 없는 혐오와, 동정과 시혜의 시선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사실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것은 바로 "그들은(장애인은/여성은/성소수자는- 기타 사회적 소수자들은) 나보다 잘나지 못한, 열등한 자들이다." 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앞선 틀린그림찾기 문화제(2012학년도)에서 나는 '결정장애'와 '선택장애'라는 용어에 대해 글을 쓴 적이 있었다. 이 글을 읽는 이화인들도 한 번 쯤은, 혹은 아니라도 주위 사람들이 이 용어를 사용한 적이 있으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정말 본인도, 주변 환경에서도 이 용어를 접한 적이 없다면 박수를 쳐드리고 싶다!) 물론 '너 애자냐?' '이 장애새끼야'와 같이 직접적인 비하의 '의도'가 발화 당시에 없었다고 해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너 장애인이니?'와 같은 말이 '너는 장애인도 아닌데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나 선택장애/결정장애 인가봐'라는 말도 이와 마찬가지로 '선택을 잘 하지 못하는 특성'을 '장애와 같은 문제행동'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은 말이나 다름없다.

당신은 과연 장애인 당사자를 앞에 두고도 '선택장애'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선택장애/결정장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부족하거나 모자라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비장애인보다 능력의 정도가 낮고, 결국 '장애'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명제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의 행동에 상대적인 우월성과 열등성을 부과하고, 그 열등성을 = 장애! 라고 명명하는 것은 분명히 차별적인 언어사용이다. 본인이 인식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하더라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정당화 될 수는 없다.

물론 이것이 '선택장애/결정장애' 혹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도덕성이 낮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단지 말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에 이유 없이 혐오와 멸시의 시선을 받아야 하는 존재도 아니며, 그렇다고 불쌍하다고 여겨질 대상도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모두 돌아보기를 바란다. 자신이 정말 장애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설령 '장애인은 불쌍하지 않아! 장애인도 혐오 받아야 할 사람들도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더라도, 일상의 사소한 것들에서 '장애'라는 개념과 용어에 부과된 사회적인 낙인 자체를 간과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들은 나보다 못하다'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힌 어떤 말들과 행동들도, 그것이 겉보기에 친절의 탈을 뒤집어썼다고 해도, 그것은 절대 친절이 될 수 없다.

정말 글이 다른 길로 새고, 우리 집 뒤의 인왕산을 넘어 마치 에베레스트 산도 등정할 기세지만, 내가 이 생각의 흐름과 만화 '원 플러스 원'을 엮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이 글을 읽어주는, 책자를 읽어주는, 그리고 자보를 바라보는 이화인 모두가 단지 한 번 더 고민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다고 해서 절대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친절하게 대해 줄 필요도 없다고. '원 플러스 원'의 작가가 한 말을 하여 그만 이 긴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솔직히 욕심 같아서는 많은 분들이 내 만화를 봐주고 장애인들의 입장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주시고, 만약 색안경을 끼고 장애인을 보던 독자라면 물렸는데 내가 색안경을 끼고 있었구나. 라고 자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걸 말 그대로 욕심이다. 당장 내 만화를 만화로서 재밌게만 봐주셔도 고마운 일이다. 내가 이런 의도를 가졌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여달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다만 재미로 보는 백 명 중 한 명이라도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조금 바뀌면 참 좋을 것 같다."

## 사이사이 만화 1. 고향 가는 방법



올해 추석연휴가 길어 고향에 가고 싶은데, 지체장애3급인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서대문구에서 고향인 청주까지 갈 수 있는 대중교통이 고속버스밖에 없는데, 저상 고속버스가 없어 고속버스를 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택시를 타고 갈 수는 없어 단념했는데 서대문구 지체장애인 커뮤니티에서 청주까지 같이 갈 사람을 모으고 있더군요. 긴말 필요 없이 정해진 날짜에 광화문 광장에서 모이자고 하셨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10명 정도의 지체장애인이 모였고, 글 쓴 분은 인원체크를 한 뒤 어디론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 예, 여기 광화문 광장 근처인데요, 지체장애인 여럿이 피켓 들고 모여 있는데요.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네요. 예, 빨리 와주십시오."

우리나라에 저상 경찰버스는 2007년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200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 저상 경찰버스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수송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4년 4월 20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저상 고속버스 도입을 위한 투쟁 현장에서도 투입되었습니다. 이로써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몰라도 '구속 이동권' 만큼은 완벽하게 보장된 셈입니다.<sup>3)</sup>

얼마 안 있어 저상 경찰버스가 도착했습니다. 건장한 젊은 청년들이 직접 버스에 태워주기까지 하네요. 저상 고속버스가 없는 대신 저상 경찰버스가 있으면 당연히 저상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대신에 저상 경찰버스를 이용하면 된다는 것을 왜 이제껏 몰랐을까요. 다들 고향에 갈 기대에 부풀어 신나게 버스에 탑니다. 출발!

3)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811026014>  
서울신문, 저상 달장차를 아시나요. 김효섭 기자



## 2 / 관계

### 아는 사이

: 잘 알지도 못하면서

초 2

“그럼 전공이 뭐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 학생인 내가 항상 듣는 질문이다. 이만큼 대학생은 사람들로 부터 그들이 대학생인 이유가 각자의 전공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기를 기대되어지는 것 같다. 심지어 나 스스로도 나의 전공과 멀리 떨어져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기소개를 할 때면 항상, 전공을 들어 나를 설명하는 것을 가장 편하게 느끼니까.

“네 그래서 저는, 특수교육과 000입니다. 특수교육과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가르치는 법을 배우는 과예요. 사범대구요.” 이 말까지 마쳤을 때 상대방에게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반응은 이렇다. - 와, 정말 착하구나, 좋은 일 하네!

이어서 그들은 내가 특수교육과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로부터 ‘왜 장애-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의 이유를 듣고자 한다. 나의 주변에 장애를 가진 가족, 친척이 있는지, 어렸을 때 장애와 관련된 어떤 경험이 있는지? 등의 질문과 함께. 하지만 나는 이런, 인생에 걸쳐서 장애를 고민하기로 결정! 하기에 정당한 이유가 하나

도 없다. **그저 인권에 관심이 많았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학교를 다니는 내내- 나는 왜 '장애'를 신경쓰기로 선택했는가, 머리를 쥐어짜매고 그 이유를 찾았다. 고민이 커져이 쌓여갔다. 이 겹을 하나하나 들추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혼자 진지한 척은 다 하는 것 같아 보여서. 장애 이야기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주 이야기되는 주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내 전공이 무엇인지 듣고, **"특수교육과구나! 여기 너의 지도가 필요한 사람이 아주 많아! (웃음)"** 라고 말하는 지인들의 말도, 우스갯소리로 넘기곤 했다.

내가 장애를 고민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 들어간 틀린그림찾기에서의 활동이 더해지면서 "나 = 장애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타이틀은 공식화되어 자리를 잡았다. 나를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며 자신의 장애에 대한 경험을 조잘조잘 말하는 사람이 늘어갔다. 이럴 때 나는 속으로 생각한다. '내 속도 모르면서'

예를 들면, 내가 장애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접근할 때, 동정과 시혜라는 키워드를 지양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장애인 봉사활동 같은 거 하지 마! 라고 말할 수는 없다. 나의 장애관이 '올바르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에 관해서는 나의 생각이 맞단다!' 라고 주장할 수도 없다. 하지만 나는 장애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음으로써, 어떤 적절한 조언 혹은 강력한 비판을 하도록 요구되어질 때가 많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 왜 주변 사람들 중 나만 장애를 고민하면서 살아야 하지? 만사에 유쾌해 보이는 나는, 장애라는 키워드가 나왔을 때 진지한 태도로 변한다면 '아 재는 장애 이야기엔 좀 민감한 애야'라는 말을 듣는다. 그리고 나는 까칠한 아이가 되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 장애 관련 주제가 나오는 걸 피하게 된다. 그리고

속에서 조용히 내 안의 모순을 느낀다. 장애에 대한 이야기가 되도록 많이, 사람들 사이에서 고집어내어져야지 된다고, 그게 장애 인권을 향상시키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사람들의 '장애'에 대한 말을 막고 있지 않은가?

이제 다시 한 번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왜 장애를 고민하기를 선택했는가? 이제는 알 것 같다. 내가 주변인들 사이에서 홀로 '장애를 고민하는 자' 타이틀을 달고 있는 것에 문제를 느끼는 이유는, 참 우습게도, 나 또한 특수교육과에 들어와 '장애'를 몸소 접하기 전까지는 장애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낸 덕분이다. 더 많은 이에게, 더 많은 이야기가 공유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그 문제를 고민하기로 선택하는 계기가 있어야지만 그 일이 보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굉장히 짜증나고, 문제적이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장애, 장애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결국 나는, 장애는 특별한 사람만이 어떤 의무를 가지고 고민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장애라는 것은 말하기에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장애라는 키워드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라, 논쟁적이지만 묵에서 깔깔하게 걸려서 잘 나오지 않는, 다른 여러 키워드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서로 어렵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얘기하기에는 미적지근하고 껄끄러운 사이에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툴툴이 좀 웃긴 얘기도 하면서 발전적인 태도를 공유하는 사이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의 나에게겐 최고로 좋은 생각이다.

### 들어온 바에 의하면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나무'라는 지적 장애인 친구가 있었다. 나무는 3학년 때 친해진 친구이며, 그 전까지는 잘 모르는 사이였다. 전에 내가 나무에 대해 들어온 바로는 2학년 때 나무네 반에는 '나무 당번제'가 있었다. '나무 당번제'란 번호 순서대로 돌아가며 하루 동안 나무와 같이 급식을 먹고 같이 이동을 하는 시스템이었다. 학생들에게 많은 정성과 관심을 쏟는, 정말 착한 나무네 담임선생님이 나무를 '위해' 만든 것이었다. 당시 나는 그 당번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나무는 글도 읽고 쓸 줄 알고 숫자도 셀 줄 알며, 심지어 혼자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할 수도 있는 애였기 때문이다. 그런 나무에게 '친구'가 아닌 '당번'은 필요 이상의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3학년 때 나무와 같은 반이 되고나서 든 의문은 "과연 이런 상황을 유도하는 <통합교육>이 나무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였다. 우선 학교에서 나무가 대입준비를 하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에 학교는 나무를 자연계열로 보내 부족한 자연계 인원수를 충당했다. 이 상황이 내 눈에는 나무가 비장애인들이 주를 이루는(사실은 나무를 제외한 모두가 비장애인인) 곳에서 다른 애들의 눈치를 보는 법과 비속어만 배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무는 심지어 '장애인'이란

단어를 욕으로 쓰고 있었다(그래, 대한민국 청소년으로서 당연히 배워야 하는 것을 배운 걸지도! 살아가는 데 매우 필요한!).

지금 생각해 보면 나무가 학교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너무 내 기준에서만 본 것일 수도 있겠다. 나무는 자연계에 예쁜 친구가 있어서(나무는 예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한다. 나는 별로 예쁘지 않았기 때문에 가끔 상처받았다.) 또는 정말 자연계 과목들이 좋아서, 자연계로의 진학을 '선택'한 건지도 모를 일이다.

나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스스로 고등학교 시절에 의미부여를 많이 했다. 어쩌면 그 때의 내 기준으로 나무의 고등학교 생활을 평가했기 때문에 나무를 동정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나무가 '고등학교'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고민 없이 "그 때가, 그 애가 좋아했어."라고 할 만한 시간과 사람이 있는가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 또 내가 그런 사람 중에 한명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통합교육'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색함 없이 어울려 같이 교육을 받는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면, 그러한 의도대로 한 번 움직여주겠다는 마음이 나로 하여금 나무랑 친해져야겠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 시선을 느껴요

나무랑 친해지기 위해 가장 먼저 한 것은 또래 여자애들이라면 당연히 하는, 찰싹 붙어 다니기였다. 그래서 3학년 시작하고 나서부터 나무와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학교 행사가 있으면 같이 갔다. 그렇게 다른 친구 2명이랑 나무랑, 네 명이서 같이 다녔는데, 나무랑 같이 다니면서 주변 시선을 많이 느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두 명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나무와 원래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같은 반이었던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마주치는 사람마다 나무를 왜 '챙기느냐'고 물었고, 자꾸 나더러 '착하다'고 했다. 마치 내가 그 소리를 듣기 위해 나무랑 같이 있었던 것처럼.** 주위에서 나를 '착한

애' 취급하니 진짜로 내가 그 소리를 듣기 위해 나무랑 친해지려 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게 되었다. 누군가에게 설명하기 애매한 이유로 나무랑 친해진 것이 '착해'보인다면, 그렇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무와 친구가 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반장이 되었다. 물론, 그런 이유 말고 다른 이유도 있었다(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한 번쯤은 해봐야... 고3이라서 아무도 하기 싫어하니까... 이때가 기회인 것 같기도 하고... 졸업하면 리더가 될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반장이 되고 나니 내 '선행'의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이 줄었고, 또 물어보는 몇 명도 내가 반장이라는 사실만으로 바로 수긍했다. 다들 예상했던 대로 행동해주어서 이런 저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런데 이제 와서 봤을 때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나는 나무의 장애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친구가 되고 싶었던 건데, 반장을 한 이유 중 하나가 주위의 시선이 되어도 괜찮은 것이었을까.

### 나무의 시간은 막 간다 - 막 가나?

고3의 45분짜리 수업시간은 대부분 자습시간이 된다. 그 시간동안 나무의 일과는 이러하였다: 수업 종이 치면 교과서를 꺼낸다. 약 10분 동안 교과서를 보다가 본인이 가지고 다니는 한글 교본과 수학 교재를 꺼낸다. 15분정도 교재를 풀다가 남은 20분 동안은 잠을 잔다. 쉬는 시간 종이 치면 일어나서 문을 세게 열고 나갔다가 수업 종 치기 직전에 문을 세게 닫고 들어온다. 그리고 다시 반복. 대각선 뒤에서 본 나무는 그랬다. 그런데 나무가 가지고 있던 한글 교본은 초판 2006년 정도 된 매우 오래된 책이었고, 초등 고학년용 수학 교재는 10 이상의 숫자를 잘 못 세는 나무에게 십의 자리 숫자들의 덧셈을 시키고 있었다. 정말 이런 책들이 나무에게 도움이 되

는지 의문이 들었다. 나무가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이유가 저 책들이 재미없어서가 아닐까. 그래서 쉬는 시간에 뭐 했느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는 것이 아닐까. 나무가 예쁜 그림이 있고, 내용도 재밌는 책을 읽는다면 좀 더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나무에게 예쁜 동화책을 사줬다. 처음에 나무는 책 진짜 좋다고, 잘 읽겠다고, 꼭 다 읽겠다고 나와 약속까지 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부터 나무는 책을 읽지 않았고... 내가 왜 안 읽느냐고 따지니 귀찮다며 짜증을 냈다.

나무가 보내온 수업시간들은 내 눈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였다.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책을 붙들고 읽으려 하고 있고, 그러다 결국 수업시간의 절반정도는 잠을 자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그런데 나무는 나름대로 재밌게 수업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저 나무랑 친해지고 싶었을 뿐 이었는데 어느새 나무의 학교생활을 평가하고 있었고, 내 기준에 맞춰 생각하고 있었다.

나무가 내가 준 책을 무진장 읽기 귀찮아한 이후로 나는 수업시간에 나무가 뭘 하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반에서 나는 반 뒤치다꺼리를 하는 '반장'이었고, 또 나무를 '챙기는' 반장이었다. 한 번은 나무 주위에 앉은 애들이 나에게 오더니 자리 언제 바꾸느냐고 물었다. 나무 주변에 앉으니까 신경 쓰인다고. 나무가 어수선하고 냄새도 좀 나서 공부에 집중하기 힘들다고. 확실히 나무가 이리저리 많이 움직이긴 했다. 수업시간 중간에 책상 서랍에서 세 번 이상은 소리 내어 책을 꺼냈고, 혼잣말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변에서 떠드는 것보다는 조용했고, 책 소리를 내는 것도 옆 사람이 책장 넘기는 것과 크게 다를 게 없었다. 또 냄새도 말한 것 그대로 '좀' 났고, 사실 불쾌한 냄새라기보다는 그냥 사람마다

풍기는 냄새, 체취 같은 것이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고 내가 정의롭게, 용기있게 “그런 걸 왜 신경 쓰느냐”고 물어볼 수는 없었다. 굳이 다수 여자아이들의 말에 반박해서 뭐고 싶지 않았다. 그냥 담임선생님께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다고 전해드렸다. 거기에서 “제가 나무 옆에 앉을게요.”라고 말해 착한 반장이 되고 싶지도 않았다. 장애학생을 챙기는 한 명이 되면 내가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당번제가 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내가 별 말이 없자 담임선생님은 나무를 혼자 앉히기로 결정했고, 교실 맨 앞 구석자리는 나무 자리가 되었다. 자리 제비뽑기를 할 때 사전 조작으로 나무는 언제나 맨 앞 구석자리가 나왔고, 나무는 “짜증나게 난 맨날 여기야.”라고 하며 그 자리로 돌아갔다.

나는 나무에게 필요 이상의 관심을 주고, 나무에게 필요한 것의 이상의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용기 없는 것과 더불어, 담임선생님과 친구들 사이에서 필요 이상으로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나무는 타인에게서 필요 이상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조치가 취해지게 되었다. 만약에 나무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행동을 했다면 나쁘지 않은 결과를 낳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내가 나무랑 같이 앉아서 나무가 혼자 한 곳에 계속 앉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단지도 하는 일들 말이다.

### 틀린 새내기

나무와 1년 동안, 정확히 말해서는 8~9개월 동안 친구로 지내면서 이러저러한 고민을 많이 했다. 내가 나무 말고 다른 비장애인 친구를 사귄 때는 어떻게 행동해왔는지, 나무를 대하는 내 태도는 그것과 같은지 등등. 나무와 함께 한 동안 ‘당번제’처럼 나무가 다르다는 사실을 과대평가해서 필요한 것 이상의 도움을 주고 싶지 않았다(사실 도움도 별로 필요 없었다. 그냥 내가 친구가 하고 싶었을 뿐.). 나무와 같이 있었던 내내 어디까지가 나무에게 좋은 것이고 어디까지가

나무에게 필요 이상의 것인가 생각했다. 그리고 결국 그것에 대해 확실히 알아내지 못하고 졸업을 했다.

대학에 들어갔다. 대강당 오리엔테이션 때 물살 같은 인파 속에서 누군가가 자치단위 홍보집을 얹어주었고, ‘틀린그림찾기’에 대한 홍보글을 봤다. 가장 먼저 나무가 떠올랐다. 가장 먼저 나무를 생각했다는 점에 죄책감이 들었다. 나에게 나무는 결국 ‘고등학교’의 키워드가 아니라 ‘장애인’의 키워드였구나. 그렇다면 나는 나무의 친구 자격이 없는 것인가. 틀린그림찾기에 들어가면서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장애인이었어요. 라고 말하면 안됐었다.

문집 글로 ‘친구 사이’라는 제목을 달고 나무에 대해 쓰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는데 내가 과연 나무랑 친구였나, 그렇다고 말해도 되나, 싶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사실 지금까지 연락하고 지내는 고등학교 친구가 과연 몇이나 되나, 얼마 없으니 그냥 나무도 그런 친구 중 한 명이었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졸업하고 난 뒤에 나무와 연락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 내가 나무에게 ‘참 좋았던’ 고등학교 친구였는지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아직도 나는 내가 하는 행동이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괜한 오지랖을 벌이는 것인지 고민한다. 가끔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행동하는 데에 제약을 주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나무가 지정된 좌석에 앉게 되었을 때처럼. 우선 행동해보고 그것이 오지랖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배워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전철역에서 보도블럭을 벗어나 벽 쪽으로 가고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달려가 빨리 말을 건다든지 하는 일들 말이다.

## 그렇고 그런 사이

: 우리 사이에 '장애'라는 키워드가 들어갔을 때

민트

### <인물 설명>

- 민트: 본인 a.k.a 글쓴이
- 초코: 민트의 약 2년 반 된 애인
- 만두: 초코와 민트를 소개시켜준 사람

### 시나리오 1 :

"만두가 소개시켜주는데 내가 시각장애인이라면?"

초코: 만두가 "동기가 있는데 시각장애인인데 오빠랑 성격이 잘 맞을 것 같아"라고 했다면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 삼촌이 시각장애인인데 나랑 있으면 조금 불편하거든.

민트: 누가 불편해?

초코: 내가. 움직임이 제한되니까. 가족이 같이 걸어가면 (이제 삼촌 혼자 걸어 다닐 수 있긴 해. 지팡이 들고 - 그렇지만 이걸 익숙한 길에서만. 익숙한 길이 아니면 삼촌이 불편해해 - 불편하다고 얘기는 안 하지만) 항상 한명이 삼촌 손을 잡고 다녀. 그게 빠르고 편해. 방향도 잡아주면서. 어른들이 그러라고 해. 그래서 내가 만날 삼촌 손잡고 다녀. 어릴 때부터 그랬어. 그

래서 너를 만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각장애인인데 만나봐"라고 했으면 불편했을 것 같아 마음이. 이동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안 만나려고 했을 듯? 만약에 만두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내가 너를 만났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랐을 것 같아. 그 때는 쉽게 외면 못 했을 듯. 최대한 너의 장애가 나와 아무 상관없다는 식으로 대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다른 장애인들은 잘 모르겠는데 시각장애인은 삼촌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서 그냥 못 지나쳐. 다른 장애인이면 그냥 지나가는데 시각장애인이 길을 헤매고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게 마음이 불편해. 삼촌을 보는 것 같아서 도와주고 싶고 그래.

민트: 만약 나랑 성격이 잘 맞아서 사귀게 됐다면?

초코: 처음에는 도와주고 싶고 외면 못하고 동정으로 동생처럼 도와주고 그러다가 성격도 잘 맞고 예쁘장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정이 붙어서 만났을 것 같아.

민트: 그러니까 여자 대 남자로 시작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지?

초코: 응. 처음에는 내가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으로 시작했을 것 같아.

"장애인이었다면 여자로서가 아니라 동정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 대상으로 시작하게 됐을 거라는 초코의 말에 틀린그림찾기 내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생각났다. 동정의 시선으로 장애인을 바라보는 것은 옳은 일 인걸까? 길을 가다가 장애인이 있으면 도와주는 게 옳은 걸까?"

시나리오 2 :

"사건지 3년째, 어느 날 교통사고로 내 다리가 절단되었다면?"

초코: 지금까지 부모님을 뵙지 못했지만 이런 일 있으면 당연히 찾아가겠지. 가서 수발도 좀 들고.

민트: 데이트는?

초코: 휠체어 내가 끌지. 공원으로. 싫으면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뭐.

민트: 학교는? 내가 교통사고 나면 얼마나 트라우마에 빠지겠어...

초코: 학교도 내가 데려다주지.

민트: 만약 오빠가 사고 나면?

초코: 진짜 솔직히 말하면 내가 사고가 나서 다리가 잘리면 나는 막 화를 못 참을 것 같아. 그래서 한동안 너도 밀어내고 아무도 안 만나고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

민트: 왜 화가 나?

초코: 다리가 없으니까. 세상에 화를 낼 듯. 내가 지쳐서 너도 밀어낼 것 같아.

민트: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는?

초코: 모든 것을 체념하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겠지. 그리고 마음을 다잡아서 책을 쓸 거야. '마음의 치유' 이런 거.

민트: 왜?

초코: 얼마나 좌절에 빠지겠어.

민트: 책의 목적이 뭔데?

초코: 내 이야기로 사람들을 감동 시킬 수 있게. '저 사람도 좌절에 빠졌는데 마음을 바로잡았구나. 나도 힘내야지'라고 생각하게. 내가 사람들에게 응원이 될 수 있게.

민트: 나와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초코: 우선 밀어냈잖아. 다시 못 돌아갈 것 같은데 그때 일을 사과하긴 할 것 같아. 하지만 별 기대감은 안 품고.

민트: 내가 안 밀려났으면?

초코: 그럼 좋은 거지 뭐.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겠지?

"휠체어 얘기가 나오자 갈 곳을 '공원'으로 자동적으로 정하는 초코의 모습을 보며 진짜 한국 사회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갈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내 일이 아닐 때에는 매우 쉽게 이것저것 '내가 다 해주면 되지' 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막상 자신의 일이 되었을 때는 그것이 안 되고 부정적인 사고가 지배한다는 걸 느꼈다. 또한 책을 쓰고 희망을 품는다던데 나를 다시 만날 기대감은 왜 안 품지?"

시나리오 3 :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청각장애인이란?"

초코: 올 것 같아. '내가 미안하다' 하면서. 내 씨앗이니까. 그러면서 최대한 남들과 다르지 않게 교육을 시키지 않을까. 내가 설리반이 되겠음. 특수학교 안 보낼 거야. 풀리지 않을 만큼의 아이를 만들 거야.

민트: 특수학교 왜 안 보내?

초코: 조금 더 고등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더 독하게 키울 것 같아. 그냥 놔두지 않을 듯. 그렇게 해서 아이의 자신감을 키울 수 있게. 남들에게 편견어린 시선을 받아도 '나는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지게.

민트: 근데 엘리트가 되라는 건 너무 부모의 욕심 아닐까? 아이가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있는 건데...

초코: 물론 아이가 하고 싶은 게 따로 있다면 그러도록 도와줘야지.

“그렇게 이야기는 미래의 아이의 교육관으로 넘어갔다. 기나긴 토론을 하였고 나는 사실 특수학교를 보내려는 쪽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통합교육이 과연 장애인에게 좋은 걸까 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초코는 특수학교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았다. 장애를 가진 우리의 가상의 아이를 특수학교에 보내면 남들과 뒤쳐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열띤 토론을 하다가 결론은 매우 이상적으로 났다. 아이의 성향이나 아이의 의견을 통해 결정하기로.”

## 사이사이 만화 2. 애프터 신청



얼마 전에 나갔던 소개팅에서 만난 그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영화를 보고 싶은데, 다 아니라고만 하네요. 제가 제안한 영화가 다 별로인 걸까요? 아니면 혹시 제가 별로라서? 저는 이번이 아니면 기회도 없을 것 같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모 아니면 도니까요.

“혹시 저랑 영화 보기 싫으신 건가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외국영화를 보자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영하는 대부분의 한국 영화는 자막이 없습니다. 이게 당연한 걸까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은 어떡하죠? 독화<sup>4)</sup>로 소통하는 청각장애인이라면 자막이 없어도 영화를 이해하기가 비교적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을 짐작하는데 단서인 소리만 나오는 장면이 나온다면, 그 장면에 대한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겠지요.

알고 보니 그녀는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영화를 좋아하지만 한국영화는 잘 보지 않는다고 하네요. 특히 저와 영화를 보고 나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내용을 잘 모르면 이야깃거리가 없을 것 같아 한국 영화는 안 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우선 그녀와 외국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음, 이제는 같이 영화제도 가고 그런답니다. 하하하.

4) 독화: 말하는 사람의 입모양을 보고 음성언어의 자극을 받아들여 시각으로 언어를 읽는 방법.(두산백과)



### 3 / 시간

## 내가 고민하는 사이

무니

새내기 시절 학생문화관에서 오며가며 '틀린그림찾기' 현수막을 봤을 때, 역시 대학교는 자기 공부만 하는 고등학교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대학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인권운동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고,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접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 때의 나는 인권(누구의 인권이든)에 대해 이야기하는 곳이라고 하면 먼저 투쟁과 사회운동 같은 단어들을 떠올렸다. 내가 아는 게 없으니, 만약 그런 단체에 들어간다면 그들이 말하는 것에 휘말리는 건 아닐까 걱정만 앞섰다. 그래서 그동안 '틀린그림찾기'를 지나쳐가며 저 곳은 나와 어울리지 않는 곳일 거라고 생각했다.

나름대로 바쁜 대학생활을 보내던 중, 작년에 2013 틀린그림찾기 문화제 문집 <변명>을 읽게 되었다. 제목을 읽을 때부터 내가 그동안 해온 것까지 변명들이 겹쳐지면서 호기심이 생겼다. 문집에서는 '병신', '결정장애'의 정의와 장애인 자기소개 JM사건, 공익광고의 모순 등을 주제로 다루고 있었다. 글의 대부분이 내가 일상을 살면서 관심 있게 보았거나 의문을 가졌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고 있는 고민과 내 삶이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태까지 내가 직접 겪어온 장애에 관한 경험은 모두 의문으로 끝났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같은 학교의 장애인 친구를 대했던 나의 태도들을 이후에 돌이켜보며 자책하면서, 그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생각했다. 장애인과 2인 1조가 되어 생활하는 캠프에 참여한 후 봉사활동 확인서를 받으면서도, 모두가 뿌듯함을 느낄 때 내게는 어딘가 미적지근한 느낌만이 남았다. 길에서 장애인을 볼 때는 괜한 불안감이 들기도 했다. 나는 틀찾에서 이런 사소하고 찜찜한 의문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다.

재학 4년차에 우연히 시작한 틀린그림찾기 활동은 솔직히 말하면 마냥 신났다. "드디어 내가 사회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된 건가! 뭔가 대단해보인다! 야호 ^0^" 이런 느낌. 나는 작년 겨울방학부터 세미나에 참여했고 학기 중에는 본격적으로 틀찾인이 되어 새내기 교양을 함께 했다. 그리고 4월 20일 장애차별 철폐의 날에는 마로니에 공원에서 했던 추모제에 참여했는데, 이 추모제는 내 틀찾 생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곳에서 이전까지는 만날 수 없던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 부당한 법에 대해 말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 화재로 돌아가신 장애인 활동가 故 송국현 씨를 추모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세월호 사건과 고인을 기억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었다. 추모제에 간 이후로 내 좁은 반경의 생활에서나 세미나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내 생각을 타인에게 말하는 것을 많이 주저하는 편이어서 많은 선택지들 중에 가장 나은 것, 다수결로 정해진 것을 따르는 편이었다. 내가 본 대부분의 사람들도 무언가를 발언하고 요구하고 문제삼는 것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올해 한국 사회에서는 여태껏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던 문제들이 터져 나왔다. 사회에 대한 무관심과 계급사회의 폐해가 만들어낸 문제들이 드러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손쉽게 볼 수 있는 미디어가 전하는 소식에만 의

존하지 않고, 연속된 사건들 이후에 순하게 드러난 우리 사회의 문제의 원인을 찾으며, 진실을 알리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틀чат인들처럼 크크) 덕분에 겉쟁이인 나도 피해오기만 했던 내 생각에 직면하고 말할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새내기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학년이 되었지만, 틀чат의 새내기로서 가장 크게 얻은 것이 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그에 관해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이다.

우리는 타인과 사회를 인식하면서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 다른 사람과 나 사이의 닮은 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어떤지도 알게 된다. '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굳이 다름을 인식해야 하는가? 타인과 나 사이에 선불리 선을 그어버리는 건 아닌가?'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다른 것은 분명히 다르다. 중요한 건 그 앞에서 취해야 할 우리의 태도라고 생각한다. 나는 장애인과 다르다. 그럼 다르다는 건 무슨 기준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사회의 기준? 신체적 특성의 차이? 이제까지 내가 장애인을 보며 불편했던 이유는 이 기준의 모호함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분명 그들과 다르지만 같은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살아갈 것이 명백하므로 내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태도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틀린그림찾기에서 배운 것은 내가 이제까지 그저 내 주변의 사람들이 택한 기준에 따르기만 하고 문제삼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의견에 의문을 품거나 찜찜한 기분이 들었음에도 내가 틀린 건 아닐까 몸을 사리기만 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에 대해 생각할 때 장애를 가진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 그들이 문제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 '그게 무슨 문제야! 유난떠네!'라고 넘겨버리기 보다 그들의 입장에 조금이라도 공감하려는 노력을 해보는 것이다. 같이 살기 위해서. 매우 거창한 얘기가 되어버렸지만, 대학생활 끝 무렵에 겨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은 정말 틀чат 덕분이다. 아직도 바보처럼 머뭇거리고 있지만, 들어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 고맙다.

## 내가 없는 사이 part.1

: 내가 무슨 일을 겪을지 상상할 수 없다

32

### 1. 내가 없는 사이

(1) 나는 오늘 수술을 받았다. 편도에 생긴 혹을 떼어내는 수술이었다. 의사는 이 나이에 여성에게 많이 생기는 혹이라고 했다. 이 정도는 암도 아니고, 혹이라고 그냥 혹. 근 두 달 동안 아이를 봐주던 활동보조 학생에게 내가 없는 사이 집에서 아이와 함께 지내달라고 부탁했다. 학생이 말하길 아이가 밤마다 공풍 앓는다고 한다. 엄마 수술이 잘못될까봐, 엄마가 잘못될까봐 움직이지도 못하는 몸에서 맘을 뻔뻔 흘리면서 한숨도 못자고 엄마 걱정을 한다고 한다. 아이야, 너도 내가 없어지는 게 무섭니. 무섭지. 무섭겠지. 너에겐 나 하나뿐인데.

(2) 우리 집에는 비상 119 호출기가 있다. 내가 편도암 환자면서 당뇨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뇨 제 때 탄수화물을, 포도당을 섭취하지 못하면 나는 픽 쓰러져버린다. 그래서 매킨, 꼬박 꼬박, 챙겨 먹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규칙적으로 살아야하고, 내 아이를 위해서도 그게 좋다. 오늘은 몸이 너무 무거워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눈을 뜨니 오후 네시다. 그래, 그래 밤을 해야 하는데.. 일단 사탕을, 사탕을 먹어야하는데.. 제 때 포도당을 섭취하지 못하면 그래 지금처럼, 나는 픽,하고 쓰러진다. 그 와중에 호출기를 누른다. 억 하고 쿵 하는 소리에 방에 있는 아이가 소리를 지른다. 정신을 놓으면 안 되겠지. 안 될 거야.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야, 해.

—지금은 응급실에서 포도당을 맞고 있다. 간호사가 옆집 아줌마와 학생이 집에서 아이와 함께 있다고 전해온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3) 토요일, 일요일에는 활동보조 학생이 아이와 놀아주기 위해 집에 온다. 하루 두 시간씩, 학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중국집에서 볶음밥과 우동을 시켜먹는다. 아이는 휠체어에 묶여있어도 오른손으로 숟가락질을 할 수는 있다. 그래, 다 먹었구나. 이제 좀 누워있자. 마사지도 하고, 기저귀도 갈고, 활동보조 학생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아이의 목과 무릎 아래를 붙들고 쟁 소리를 내며 들어올린다. 저래 보여도 열다섯인 아이는 골격도 커지고 살도 붙어서, 성인이라지만 아직 어린 여학생이 번쩍 번쩍 들기엔 버거운 것이다. 학생이 아이에게 우스갯소리를 던진다. 아이고, 짜장이 얼굴에 범벅이 돼서 수염인 줄 알았네. 수염 난 아저씨네! 아이가 까르르 웃는다.

우리 아이는 웃으면 온 몸이 일자로 경직된다. 목은 있는 힘껏 젖혀서 목 소리가 난다. 굽어있던 다리가 짹 뻗는다. 아이를 조심조심 마루에 내려놓던 학생이 어이쿠 소리를 내면서 주저앉는다. 순간 내 피가 거꾸로 솟는다. 두 다리가 번쩍 퍼진다. 손이 높이 올라간다.

짜

“너 어찌려고 그래. 옮기는 중에 웃으면 어떡해! 너 뻗대서 선생님이 너 떨어트릴 뻔 했잖아. 다칠 뻔 했잖아.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할 것 아니야 어? 내가 없어도 이럴거야, 너 나 없어도 이러면 누가 너 돌봐주고 싶겠어? 누가 널 돌봐줄 것 같아?”

너는 울지 않는구나. 그리고 목소리를 쥐어짜내서 이런 나를 향해 네가, 미안하다. 고 한다.

## 2. 꽃이 피는 것처럼 웃는 너

(1) 나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다. 넥타이가 오늘따라 잘 매지지 않는다. 아내는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있다. 질질 흘리고, 튀겨내고, 뽀글, 웃어? 웃니. 식탁 보조의자에 앉아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눈앞의 밥을 절대 입에 들이지 않겠다며 고개를 휘젓고 있는 아이는 열여섯 살이다. 열여섯 살. 버스 잘 태워서 학교 보내. 아이는 내 얼굴을 보고 아바바 소리를 낸다. 아바, 아바. 아바인 나는 조금은 서둘러서, 아이보다 먼저 집을 나선다.

(2) 토요일 오후의 시간은 느릿하게 흐른다. 나는 침대에 누워서 거실에서 울리는 소리를 가만 듣고 있다. 활동보조 학생이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다. 호랑이가 재채기를 했어요. 푸엣취 히히 진짜 코가 간질간질 했겠다 그치? 민우야, 간질간질! 뒤이어 들리는 아이의 까르륵, 터지는 웃음소리. 애 어미는 학생이 와 있는 동안 창을 본다고 했다. 나는 런닝바람으로 슬그머니 문을 연다. 지금은 한글쓰기를 하나봐? 학생이 시웃, 이응, 하며 아이의 손을 꼭 쥐고 움직이다 기척을 느꼈는지 고개를 든다. 나는 얼른 등을 돌려, 방문을 꼭 닫고, 다시 침대에 털썩 눕는다. 옛날 생각이 나, 몸에 하나도 힘이 없는 너를 뒤에서 꼭 안고 기억, 니은, 하는 비디오를 봤었는데, 내가 민우야, 기억! 니은을 외칠 동안 너는 내 오른팔에 머리를 기대어 끊임없이 침을 흘렸어. 그렇게 내 옷을 흥뻑 적셨어. 요놈 요놈 하며 머리를 헹글어뜨리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보송보송한 것이 으흐흐 웃었어. 애야,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 너에게 나는 뭘까? 평생 너를 먹여 살릴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 그저 오랜 시간을 봤더니 익숙해진 얼굴? 아이야, 나는 너를 마냥 예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냥 버려둘 수도 없어. 내가 어느 날 사라져도 넌 그 의미를 모를 것 같다. 꼭 그럴 것만 같아.

(3) 오늘 점심은 뭘 먹누? 배를 문지르면서 지하 1층 버튼을 누른다. 돈가스

는 어제 먹었어. 회덮밥? 오, 회덮밥 좋아. 아니, 알탕? 알탕 먹을까? 어기적 어기적 복도를 달는 나. 의 시야에 썬 다섯 살 정도의 꼬꼬마가 들어온다. 꼬꼬마는 크고 그렇그런한 눈을 달고 입을 양 다문 채 걸고 있다. 조막만한 오른손의 검지손가락이 머리 위로 반짝 들려서 아비의 왼손에 쥐어져 있는데, 아비가 걷는 방향대로 한 발 한 발 휘청거리며 내딛는 것이 꼭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가는 모양새라서 웃음이 터져나온다. 꼬꼬마가 뭘 알겠누, 아바가 끌고가는 대로 가야지. 꼬꼬마의 아비를 보니 아주 귀여워 죽겠다는 얼굴이다. 저 꼬물대는 손, 손가락, 저 휘청휘청한 아이의 무게.

꼬물대는 손, 오물대는 입, 간신히 뜯 눈두덩이, 내 아가. 넌 너무 일찍 태어난 나머지 너무 작았고, 나는 인큐베이터에서 널 처음 봤어. 내 주먹만 한 너 무너무 작은 너를 망원경 렌즈로 보면서 알았다. 내가 널 내 손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말이야, 응? 저 꼬물대는 게 뭔지 아직 실감이 잘 안 났었지만,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 그냥 알았어.

꼬꼬마가 어둥버둥 걸어 내 옆을 지나쳤다. 아 회덮밥 먹어야겠다. 갑자기 아삭하고 상큼한 게 땡기네. 아이야, 너와 사는 일이 나로 하여금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그래도 하나 장담할게. 난 널 포기하진 않을거야. 나는 네, 아바바거든.

## 3. 네가 나보다 하루만 빨리 죽는다면 좋겠다

아이가 죽었다. 그리고 나는 아이가 죽은 이유를 잘 설명하지 못하겠다. 무슨 일이 있었는 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휠체어를 타고 문턱을 넘지 못하는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얼마나 연기가 뜨거웠는지, 얼마나 놀랐는지, 얼마나 아파했는지 나는 모른다.

화재 사고였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집에 좀 늦게 들어간다고 통화했었는데, 그 후에 방에 불이 났다. 아이는 인권 활동을 시작한 후로는 항상, 바쁘다고 했다. 우리 목숨이 달린 일이야 엄마.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게 너무 많

아. 내가 될 수가 없어. 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이야…… 엄마.

있잖아 애야. 나는 네가 아주아주 어릴 때- 네가 나보다 하루만 빨리 죽는다면 좋겠다. 고, 임버릇처럼 말하곤 했었어. 나 없을 너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깨지고 부서졌어. 시설에 들어가게 될까?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학대받지는 않을까?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장애인이라고 하대받으며 비참하게 지내진 않을까. 네가 하루만, 나보다 단 하루만 빨리 죽는다면 나도 정말 편하게, 너의 곁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생각했어. 지금은 다 커가지고, 인권센터에 출퇴근을 하며 바쁘게 사는 어른이 된 너지만 말이야. 당당하게 사는 너를 보며 옛날의 걱정은 조금씩 없어졌었지. 하지만 집에 돌아와 나에게 오늘 하루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조잘대는 너는 어떻게 해도 늘, 나의 작은 아이이지 않겠니?

하루도 될 수가 없다고 네가 말했지. 네가 나보다 하루보다 더 많은 날을 남겨놓고 하늘나라로 간 순간 나는 하루도 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루도 더 살 수 없는데, 무슨 일이 일어 난 건지 깨닫고나니 내가 이틀을 살고 사흘 나흘을 더 살았구나. 그래, 나는 네가 하던 일을 마저 해내기로 했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했었어야 하는 일이었어. 나는 네가 오래 살도록, 나보다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도록 빌었어야 했는데, 그걸 위해 행동했었어야 했는데.

이제 나는 하루도 될 수가 없어. 이 나라에 장애 자녀를 가진 부모가 수도 없이 많았구나. 그들의 모습에서 너와 나를 본다. 그리고 나는 진작 했어야 하는 일을 시작하려고 해. 그들이 자신의 자식을 볼 때 드는 생각 있잖아- 내가 옛날에 임버릇처럼 말했던… 그런 생각 말고 너의 죽음을 기다리기보다, 너와 함께 좀 더 살고 싶다고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일.

-----  
\*글의 내용은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꾸며 쓴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자식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부모의 생각을 헤아리기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제가 느꼈던 그들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보살피고 돌보아줘야만 하는 이의 존재, 그런 상황의 방기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자책, 왜곡, 자기방어 등- 모든 것은 부모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그 감정들은, 이 사회에서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피할 수 없는 굴레가 되어 더욱 과하게 부과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살아온 삶에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의 공유가 필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 내가 없는 사이 part.2

: 나는 활동보조인이다.

### 인트

2013년 4월 4일. 이 사람의 활동보조를 한지도 몇 주가 지났다. 이 사람은 뇌병변 5급, 언어 3급으로 혼자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다. 아냐, 혼자 쌀도 못 씻는 상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인 내가 와서 이 사람의 생활을 도와주는 것이다. 밥을 지어주고, 먹여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목욕시켜 주고, 휠체어를 끌어주고……. 이 모든 것이 처음에는 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낯설었지만 이제는 둘 다 적응이 된 것 같다. 요즘에는 그냥 마치 내가 그 사람의 부모, 배우자, 동생인 것처럼 같이 하루 종일 생활한다. 체력 소모는 조금 있지만 하루 종일 회사 책상에 앉아서 입 껍 달고 타자만 치는 것 보다는 나에게 맞는 것 같기도 하다.

오늘도 오후 9시에 칼퇴근을 했다. 온몸이 쑤신다.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서 모든 것을 해주어야만 하니 퇴근할 때쯤이면 몸이 지쳐서 흐물흐물 거린다. 이렇게 피곤하지만 걱정도 든다. 내가 퇴근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생활하지? 내가 없는 시간동안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 채로 계속 있는 걸까? 그러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의문이 들었다. 저렇게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는 왜 24시간 활동보조인이 없는 걸까. 그렇지 만 만약 내가 24시간 일을 해야 한다면……. 그건 별로일 것 같다. 내 생활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활동보조인을 24시간 지원해주려면 최소한 2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새벽에 일하고 싶은 사람은 드무니까……. 그

리고 복지가 좋으면 사람들이 하겠다고 알아서 어렵히 모이겠지만 그런 상태도 아니고, 생각의 꼬리가 꼬리를 물어 끝없는 고민에 빠졌다.

다음날 아침 제 시간에 맞춰 출근을 했다. 그 사람은 아침도 못 먹고 있었다. 아침을 차려주고,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전을 보냈다. 물을 달라고 부탁하면 물을 갖다 주고, 목욕을 하고 싶다면 목욕도 시켜주고, 나가서 바깥 공기를 마시고 싶다고 하면 같이 바깥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그렇게 오후를 보냈다. 점심시간이 지나 저녁시간이 되어 저녁을 먹고 나의 퇴근 시간이 또 다가왔다. 인사를 하고 현관문에서 신발을 신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 우당탕탕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황급히 방으로 뛰어가 보니 침대 위 창문틀에 올려놔던 컵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있었다. 다행히 그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나처럼 많이 놀란 듯 했다. 빗자루를 들고 열린 수습한 다음 그 사람 근처에 또 떨어질 것이 없나 살펴봤다. 나가기 전에 컵을 치웠어야 했는데……. 또 다시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향하면서 어제처럼 나는 수만 가지 생각을 한다.

오늘 내 궁금증을 약간은 풀었다. 출근해서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도중 그 사람이 먼저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자신은 보다시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밤에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까봐 매일 걱정한다고. 그래서 처음에 이사 왔을 때 24시간을 요구하러 갔었다고. 하지만 1,2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거절당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의문이 생겼다. 혼자서 쌀을 씻지 못 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2등급 판정을 내리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2등급 판정을 받는 거지? 왜 활동지원 서비스의 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한 걸까. 예외는 안 두는 걸까? 그 사람은 충분히 예외가 될 수 있는 상태인데……. 그 사람에게도 이것저것 묻고 싶은 것이 많지만 실례가 될까봐 물을 수 없다.

인터넷에서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검색을 하다가 '체험홈'에 대한 기사를 찾았다. 체험홈은 장애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마련한 아파트라고 한다. 겉에서 보기에는 일반 아파트와 똑같다. 아마도 그 사람이 사는 곳도 체험홈이라고 불릴 것이다. 문제는 겉에서 보기에만 일반 아파트와 똑같은 게 아니라 안에서 봐도 일반 아파트와 똑같다는 것이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사람에게는 병원에 있는 것과 비슷한 비상벨이나, 휠체어를 이용해도 편리한 공간 구조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놔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은 그냥 일반 아파트를 제공하고 '체험홈'이라고 이름만 붙이는 꼴이다. 저번처럼 사고라도 나는 날에는 누를 비상벨도 없으니 도움을 청할 수도 없게 된다. 참 이나라는 제대로 해 놓은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

4월 13일, 오늘도 똑같이 일을 갔다가 퇴근을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늦은 밤 전화가 한통 왔다. 그 사람 집에서 화재가 일어나 그 사람이 화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 가고 있다고 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 든 생각은 '심각한 상태일까?' 그리고 '내 책임일까?'였다. 아니, 거동이 불편한 것을 보았음에도 24시간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정부의 탓일까? 발견되었을 때 그 사람은 방 안에 혼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거동이 불편해 혼자 탈출도 못했을 거고 언어장애가 있어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두렵고 답답했을까. 만약 밤에도 활동보조인만 있었다면 바로 불을 끄거나 탈출을 했을 텐데……. 그 사람의 상태를 알고도 그렇게 퇴근을 한 내 잘못인 것 같기도 하다. 병원에 가 봐야 하나 고민을 하였지만 그 사람의 가족이 와 있을 테니 내가 가는 것은 어색할 것 같아서 다시 잠을 자기로 했다. 자려고 다시 누웠는데 계속 심장이 두근거린다. 내 잘못인 것 같아서.

오늘은 출근을 하지 않았다. 계속 기분이 이상하고 낯설다. 일단 출근을 안 하는 것도 낯설고 그 사람이 더 이상 그 집에 없다는 것도 낯설다. 오늘 하루 종일 뭐하지? 집에 계속 있다가는 안 좋은 생각만 들 것 같다. 어제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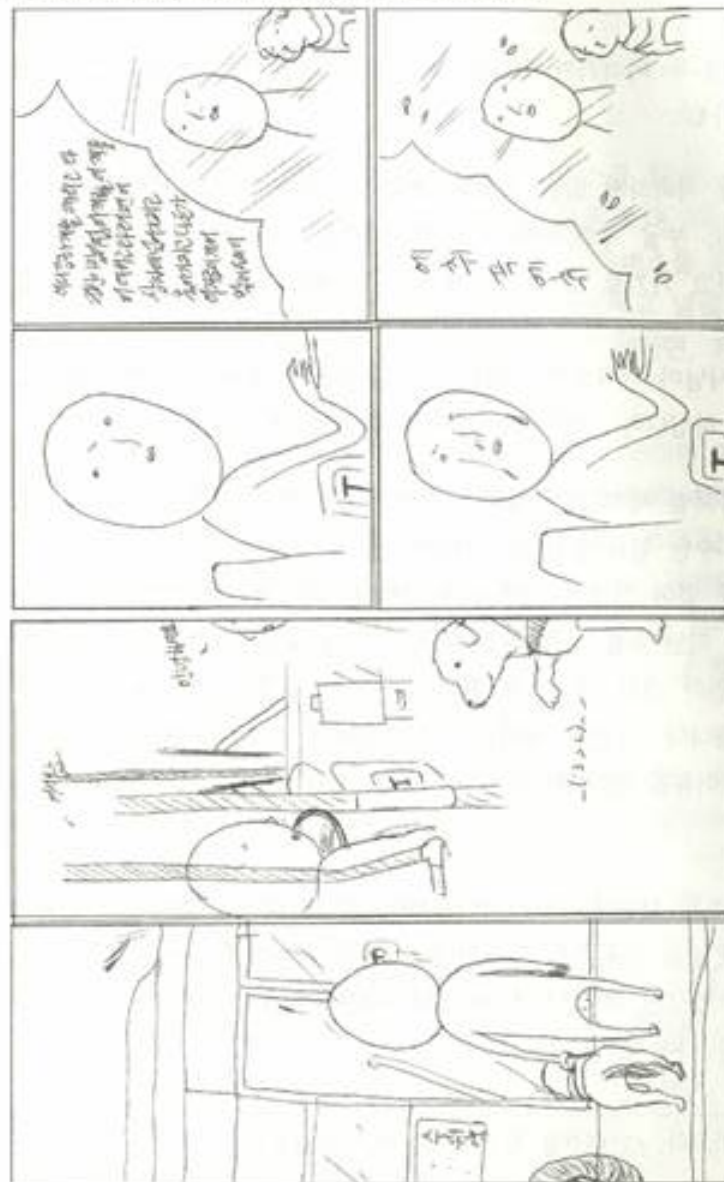
고 얘기가 계속 머릿속에 멤 돈다. 그 사람은 자기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 결국 사고가 났을 때 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내 생각은 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내가 그 사람 입장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만약 그 사람 상황에 있었다면 나는 모두를 원망할 것 같다. 내 불편한 상태를 보고도 24시간 지원받으려면 채워야 할 조건이 있다며 나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 장애인 개인을 고려하지 못하는 조건을 만든 정부. 그리고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나의 곁에 없었던 활동보조인 모두에게 화가 났을 것이다. 활동보조인 일을 한지 10년. 이런 상황은 처음이어서 이 감정이 너무 낯설다. 답이 없는 고민을 하니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

오늘 아침 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 그 사람이 3도 화상으로 인해 4일을 병원에서 고생하다가 결국 방금 전 사망하였다고 충격이었다. 4일 동안 한 번도 안 찾아간 것도 너무 죄스러웠다. 나는 그 사람이 많이 다쳤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책임져야 하는 대상이 누구일까. 그 사람의 활동보조인이었던 나일까. 정부일까. 기관일까.

어젯밤도 잠을 잘 못자서 오늘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래도 가야지. 중계기관이 새로 배정해준 사람의 집으로. 이렇게 바로 일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에 죄책감이 조금 들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동시에 한다. 월급이 많지 않은 활동보조인의 특성상 바로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바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테니까……. 당분간 그 사람 생각은 계속 나겠지만 또 열심히 살아야겠지.

\* 본 글은 고 송국현씨의 죽음을 바탕으로 쓴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없는 사이에 장애인의 집에 사고가 났을 때 장애인 당사자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낸 활동보조인의 마음속은 어떨까 상상하며 쓴 이야기입니다. 사실과는 많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다르겠지만) 최대한 활동보조인이 했을 고민들을 생각해보며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 사이사이 만화 3. 우리 개가 타고 있어요



|   |   |   |   |
|---|---|---|---|
| ① | ② | ③ | ④ |
| ① | ② | ③ | ④ |

만화 읽는 순서입니다.

이 만화에 두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셨나요? 다시 읽고 보세요. 하하하.②

저에겐 좀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모임을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줄 사람도 없고, 누구 부르기에는 그나마 가까운 거리여서 안내견과 같이 버스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기사님의 표정이 썩 좋지 않네요.

③④기사님이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십니다. 어디 버스에 개를 타려고 하느냐고 하십니다. 그런 개는 묶어서 박스에 넣고 타야 된다니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의하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등의 대중교통 수단 탑승이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다음 아고라에서 경기도의 한 운수의 버스 기사 시각장애인이 그의 안내견과 함께 탑승하는 것을 거부한 사건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피해자는 시각장애인 보조견의 탑승을 거부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으나 “다 필요 없고 내리” 라고 했다고 합니다.⑤

③④버스를 탔는데 기사님의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기사님이 갑자기 눈물과 콧물을 주룩주룩 흘리십니다. 연신 재채기를 하시는군요. 개털 알려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 약속시간까지는 좀 빠듯한데, 아... 다음 버스를 타야 할까요?

5) 다음 아고라. <안내견을 박스에 담아서 타라니요?>

## 만화를 그리는 사이 : 뒷담화

대일

(1) 4월 20일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고속버스를 탑승하려 한 장애인들을 저상 경찰버스에 태워 연행해가는 모습을 보며 ‘아니 도대체 저상 경찰버스를 만들 시간과 돈 가지고 저상 고속버스를 안 만들고 뭐한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코 가볍게 생각하고 넘길 일은 아니지만, 고속버스를 타지 말고 경찰버스를 타라고 했다면, 시키는 대로 해 드려도 된다는 말 아닌가.

(2) 우리나라에서 한국 영화를 보면 자막이 없다. 그렇다면 청각 장애인도 한국 영화를 어떻게 볼까? 자막이 있는 외국영화라 치더라도 주인공 뒤에서 효과음만 나오는 장면이 있다면 자막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따라서 배리어프리 영화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 제작되는 배리어프리 영화만 보기에는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싶을 때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도 외국영화는 대사만이라도 알 수 있으니, 소개팅녀처럼 한국영화보다는 외국영화를 많이 보지 않을까.

(3) 동네에서 버스를 타려는데 창문에 A4용지가 붙어있는 것을 보았다. ‘저희 OO운수는 시각장애우분들의 안내견 탑승을 환영합니다.’ 아니 누가 뭐라고 했나. 이왕 쓸 거면 제대로 좀 써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한때 그 버스회사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 탑승 거부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여러 탑승거부 사례가 모두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한 ‘비도덕적인’ 비장애인을 때문이진 않다. 기사가 정말로 정당한 이유로 탑승 거부를 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개털 알려지가 심하다면, 안내견을 데리고 타려 했던 승객은 다음 차를 타는 게 맞지 않을까? 약속시간에 늦을지 몰라도.



## 문화제 '사이' 후기 : 과거-전 시간 사이로 / ( feat. 윤상 )

### 비인 - 드

개인적으로 이번 문화제한테 미안해요 신경 많이 못 써줘서ㅠㅠ 저 대신에 초르무니대일카리가 많이 신경써줬으니 문화제를 할 수 있는거겠죠. 이번학기 죽음의 학기였네요 다음 학기부터는 돌아오겠어요 반성반성

### 카아 - 리

안녕하세요☺ 다 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곱게 얹은 카리입니다.  
올해 틀린그림찾기 활동에 많이 참여를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저의 글을 담을 자리를 마련해준 틀찾 멤버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2014년은 많은 일이 있었던 해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면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슬픈 일들이 있었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도 많이 있네요.  
작년에는 생각에만 같히지 않고 조금의 실천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썼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외면하지 않고 나의 정의, 내가 선택한 답을 믿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사이 뿐 아니라 당신과 나의 사이부터 좁히고 싶어요.  
그 길에 또 많은 고민과 발자국들이 있어야겠죠. 하하하항 오글거리는 말은 그만써야겠다!

조금이라도 읽어주셨다면 감사하고, 이 문집을 집어들어 이 페이지까지 펼쳐 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 틀린그림찾기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학생회비를 내주신 모든 이화인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 투성이입니다! 감사 감사!

### 무 - 너이

4학년이 동아리 두 개^o^.....

늦었고 부족한 저에게 틀찾은 항상 괜찮다고 말해주었어요. 즐거운 시간들 함께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 대이 - 르

아아 뭔가 폭풍같이 문화제까지 왔군요. 정말 폭풍 같았어요... 처음에 여신 민트한테 문자 넣었을 때 나는 꾸구리니까 그냥 얘기 많이 듣기만 하고 많이 알아가야지, 이런 심산이었는데 저의 기괴한-그로테스크한-그림으로 만화까지 그리고 과거 회상도 하게 되었네요. 와우! 후! 으앙 3월 4일에 민트한테 문자하고 3월 12일 틀방문을 열고 민트의 미모에 심땃당한 게 엇그제 같은데 이제 곧 새대기가 아니라니. 하지만 닉네임은 아직도 大一. 끝까지 대일 할 테다. 후후후후, 후후후후후후. 다들 정말로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구요, 저에게 세상을 보는 창을 무제한 리모델링으로 확장시켜준 언니들 짱짱 감사해용. 두둥치 두둥치



나 좀 그만 갈귀 상

: 짤방은 념당 ㅎ 아이구 어언 4년을 달리고 있는 틀린그림찾기 활동  
입니다. 제 대학생살에서 틀린그림찾기를 빼면 별로 남는 게 없네요.  
올 한해 잘 마무리 하고 방학동안 기 충전 빠샤빠샤 해서, 내년에는  
새내기에게 자랑스러운 알찬 활동 하고 싶어요.